

〈해외연구동향〉

“교육과 권력: 역사학적 시각들” - ISCHE 35, 2013(Riga) 참가 보고 -

박 연 호 (광주교육대학교), 유 진 영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이 윤 미 (홍익대학교), 클라우스 디트리히 (고려대학교)

8월 하순에 한국교육사학회 회원 네 사람이 ISCHE 35, 2013(Riga)에 발표 차 다녀왔다. ISCHE는 ‘International Standing Conference for History of Education’의 약칭이다. 직역하면 ‘(상설) 교육사 국제 학술대회’ 정도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고유 명칭이 아니라 일반 명칭처럼 들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육사학』 제34권 제3호(2012년 9월)에 실린 디트리히 교수의 참관기나 제35권 제2호(2013년 6월)에 실린 유진영 교수의 「2000년 이후 독일 교육사의 연구주제 동향」에서는 ‘국제교육사학회’라고 번역하고 있다. 정식 번역명으로는 이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 학회 집행부나 참가자들은 이니셜인 ISCHE를 그냥 이름처럼 부르는 편이므로 이 글에서도 한글로 ‘이쉐’라고 쓰겠다.

이쉐 뒤의 두 숫자는 회차와 연도, 그 다음은 개최 장소가 된 도시명을 가리킨다. 이러한 표현은 이 대회가 매년 도시를 바꾸어 가며 열림을 의미한다. 올해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발트 3국 중의 하나인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열렸다. 여태까지 서른다섯 번 열리는 동안 두 번 열린 도시는 호주의 시드니뿐이라고 한다. 이쉐는 연륜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교육사 분야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큰 국제학회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쉐의 발자취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올해 첫 선을 보인 한국 패널에서 발표된 여덟 주제들과 대회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몇 가지 문제들을 기술하고, 내년 런던의 주제와 우리 학회의 방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이쉐의 발자취¹⁾

이쉐는 교육사 분야에서의 국제적 학식과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978년 벨기에에서 창설되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육사 분야에서의 연구의 조성 및 촉진
- 국제적 접촉, 정보의 교환, 교육사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협력 촉진
- 교육사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사가 사회적 진보에 공헌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일
- 교육기관 또는 기타 기관들의 커리큘럼 속에 교육사적 시각을 강화하는 일
- 이러한 목적들을 성취할 세션, 기능, 세미나, 스터디 그룹, 회합과 출판의 기회

창립 대회에 참석한 나라는 유럽 9개국(영국, 서독,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과 북미 2개국(미국, 캐나다)의 55명의 학자들이었고, 영어 사용 국가들과 서독, 벨기에가 주도했다고 한다. 당시는 동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동구권 학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주의자였던 영국의 브라이언 사이먼(Brian Simon)에게 초대 회장을 맡겼고, 첫 대회 개최지도 서독은 정치적 이유로 기피되고 옥스퍼드(1978)에서의 발기인 대회를 거쳐 벨기에의 뢰벤(1979)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뢰벤 대회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후의 대회를 바르샤바(1980), 파리(1981), 헝가리(1982) 등으로 서유럽과 동유럽을 오가면서 개최하기로 원칙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칙 덕분에 이쉐는 초기부터 ‘강한 유럽적 색깔’을 띠게 되었다.

이쉐는 국제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회장을 포함한 집행위원회의 여섯 위원이 반드시 서로 국적이 다른 학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학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특히 동구권 학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래는 회비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부터 논문상을 제도화하기로 했고, 이쉐의 국제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제역사학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Historical Sciences, ICHS)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1995년부터 대회 등록비에 약간의 회비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쉐의 국제학회로서의 성격은 계속 강화되어 왔다. 대회 참가자의 수효도 80년대 후반에 평균 150명이던 것이, 1990년대에 150-200명으로 늘어났고,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250-300명이 되었

1) Christoph Lüth, 'Entwicklung, Stand und Perspektive der internationalen Historischen Pädagogik am Beginn des 21. Jahrhunderts - am Beispiel der International Standing Conference for the History of Education (ISCHE)', Götte, Petra/ Gippert, Wolfgang (Hrsg.), Historische Pädagogik am Beginn des 21. Jahrhunderts. Bilanzen und Perspektiven. Christa Berg zum 60. Geburtstag. 81-107, (2000) Essen. 이하 이쉐의 역사에 대한 기술은 이쉐 웹사이트(<http://www.ische.org>)에 올려 있는 이 글의 약간 수정된 영어 번역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다. 개최지는 서유럽에서 23회, 공산권에서 3회, ‘철의 장막’이 걷힌 후 동유럽에서 3회, 중립국가인 핀란드에서 1회,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2회, 미국과 멕시코·브라질에서 각각 1회로 집계된다. 1981년에 이체의 운영 방향을 놓고, 유럽 중심의 학회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 학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여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후자의 방향으로 귀착되었다. 1993년의 리스본 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발표자가 나왔고, 이러한 현상은 이후의 대회에서도 지속되었다. 1999년에는 처음으로 유럽 바깥인 시드니에서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체가 유럽 중심 학회로부터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학회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유럽 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94.5%에서 20년 후인 1998년에 56%로 떨어지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듬해 시드니 대회 때는 34%까지 떨어졌다. 이체는 NGO로 유네스코와 파트너십을 맺고자 했으나 제삼세계(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대신 1990년 유네스코가 인증한 국제역사학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Historical Sciences, ICHS)의 일원이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네스코와 결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체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이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회원 자격을 획득하며, 그 자격이 20년간 유지된다고 한다. 이번 총회에서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History of Education)로 명칭을 바꾸자는 안건이 정식으로 제기되었지만 부결되었다. 대회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대신 자매학회 제도가 있어 국가별 학회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현재 31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 호주와 뉴질랜드, 발트 3국이 각각 하나의 학회로 가입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두 개의 학회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국가 수효로는 33개국이다.

국가별 학회들을 대륙별로 나누어 보면 유럽+북미+오세아니아가 22개국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이 중·남미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서 7개국(멕시코 포함)이다. 아프리카는 2개국(남아공, 나이지리아)뿐이다. 아시아는 전부 2개국인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극동 지역에서 일본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중국의 교육사학회를 대표하여 북경사대 교수 두 사람이 처음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한국교육사학회 회원 네 명이 참여했다.

아프리카와 인도 이동(以東)의 아시아 국가들의 이체 참여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현임 에카르트 후스(Eckhardt Fuchs, 독일 브라운 슈바이크 공대 교수) 회장은 아프리카, 아시아와의 교류 확대를 자신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회 둘째 날 후스 회장이 국가 대표 학회장들과 점심을 함께 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회동이 끝난 후, 그는 박연호 회장을 따로 불러 자신이 12월 초에 중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중간에 동북아 재단 초청으로 한국에 들릴 일이 있으니 그때 한국교육사학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했을 것을 요청하였고, 박 회장은 협조

를 약속하였다. 혹스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교육사학회가 한국을 대표하여 이체의 자매학회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하리라고 예상된다.

II. 제35회 리가 대학의 이모저모

8월 21일(수)에서 24일(토)까지 3박 4일간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제35회 국제교육사학회 연차대회가 개최되었다. 21일 오후 벨기에 루벵대학의 마크 데페페(Marc Depaepe) 교수의 “교육적 과거의 비신화화라는 끝없는 과제”(The Endless Task of Demythologizing the Educational Past -2: An Attempt to Assess the “Power of Education” in the Congo (DRC) with a Nod to the History of Interwar Pedagogy in Catholic Flanders)를 필두로 4개의 기초발표와 총 8개의 동일 시간대의 세션(Session)에 7-8개의 패널이 열렸고, 패널마다 3-5명의 발표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32개 국가에서 226명(53명이 박사과정 학생)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교육과 권력: 역사학적 시각들”이다.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이 주제를 채택하였다. 개최국인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삼국이라 불리는데, 이들은 2차 대전 이후 몇 십년간 소련의 지배하에 있다가 1990년에 독립한 국가들이다. 주로 라트비아 대학의 교수·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 대회에서 ‘발트 교육사 연합학회(Baltic Association of Historians of Pedagogy)’에서 발간한 영어로 된 ‘1940-1990년까지 발트 삼국의 교육학사 개관(History of Pedagogy and Educational Sciences in the Baltic Countries from 1940 to 1990: An Overview)’이라는 책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특기할 점은 한국 패널이 처음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학자들의 이체 참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2006년에 이체 회장을 지낸 미국의 웨인 어반(Wayne Urban) 교수에 의하면 언젠가 한국 학자가 온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표는 안 한 것 같고, 어느 대학 누구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번 일행 중의 한 사람인 유진영 교수는 독일 하노버대학 유학 중인 2007년 함부르크 대회에 발표는 하지 않고 참관만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참가일 것이다. 그러나 이체에서는 통상 참가자의 국적이 아니라 대학 등의 소속에 근거하여 참가국을 표시하므로, 작년 제네바 대회 때 고려대의 디트리히 교수가 참여한 것이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디트리히 교수는 또한 아마도 이체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련 발표를 한 학자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우리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 소재 대학의 교수들로서 이체에서 발표까지 한 것은 이번 네 명이 처음이며, 한국 관련 발표만으로 독자적인 패널을 구성한 것도 처음이었다.

‘한국 패널 구성을 통한 이취 참가’라는 아이디어는 디트리히, 유진영 교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이윤미 교수도 전부터 이취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응하였다. 박연호 교수는 2005년 1년간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Georgia State University)에 방문학자로 체류할 때, 당시 이취 회장을 맡고 있던 웨인 어반 교수가 호스트여서 그로부터 이취 이야기를 들었다. 언젠가 한 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디트리히, 유진영 교수가 올해 함께 한국 패널을 구성해서 참석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와 응낙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패널 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한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온라인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디트리히 교수는 이외에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도 이메일을 뿌려 네 사람의 참가를 알림과 동시에 발표를 권유하였다. 유진영 교수도 자신의 지도교수인 만프레드 하이네만 교수를 발표자로 섭외하였다.²⁾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세 사람의 자발적인 해외 발표자가 나타났고, 한국 교육 관련 패널을 한 날 오전·오후로 시간대를 달리 하여 두 개나 구성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한국 패널은 세션(Session) 5에 해당되어 8월 23일 금요일 오전 09:00-10:30에 룸(Room) 21에서 열렸다. 사회자는 디트리히 교수였고, 질문과 토론을 포함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발표자의 이름, 소속, 제목은 다음과 같다.

발표자	주제
이윤미(홍익대)	The Australian missionaries and education in Korea, 1890-1941
박연호(광주교대)	The Hangeul education by protestant missionaries, 1884-1905
스코트 웰스(Scott Wells,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Radical reimaginings of Hanmun education during Korea's enlightenment period: Wŏn Yŏngŭis An Elementary Hanmun Reader
클라우스 디트리히(Klaus Dittrich, 고려대)	Instructing the children of the European and American community in Korea, 1882-1910

첫 발표자인 이윤미 교수(홍익대)의 주제는 “조선에 온 호주 선교사와 교육: 1890년-1941년”이었다. 이 교수는 경상남도 지역을 주된 활동 무대로 삼은 호주 선교사들의 미션스쿨 운영 방식

2) 사실 하이네만 교수는 ‘이취의 산 증인’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학자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는 어폐가 있다. 유진영 교수가 섭외했다는 것은 ‘한국 패널 발표자로 섭외했다’는 뜻이다. 그는 1979년부터 1995년까지 16년간이나 집행위원회 위원이었고,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이취의 뉴스레터인 INHE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이취 참가의 소득의 하나는 박연호 회장이 『한국교육사학』의 ‘해외 편집위원’을 맡아 주기로 이야기가 된 하이네만 교수와 직접 상면해서 우리 학회의 대외 교류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그가 적극적인 찬성과 협조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또 다른 한국 패널 발표자인 케네스 웰스 교수(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도 해외 편집위원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을 고찰하였다. 호주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한 한 총독부의 정책과 방침에 순응하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총독부의 기본 교육 정책은 모든 학교를 일본의 국가교육 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호주 선교사들은 미션학교의 종교교육을 불허한 1915년의 개정사립학교규칙으로 인해 계획해왔던 학교 설립이 좌절되었고, 1923년 정책 변경 이후 일부 미션스쿨을 이른바 ‘지정학교’로 인정받으려 했지만 실패하게 된다. 지정학교 인가는 일찍 개교했고 자체적인 재정적 기반이 비교적 튼실했던 동래일신여학교 외에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분리 원칙’이 갖는 함정이 일부 선교사들에게 강하게 인식된 것은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함께 호주가 일본의 적국이 된 이후였고, 그들은 논란 끝에 선교 활동을 접고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교수의 연구는 주로 서울과 평양에 존재하던 미션스쿨과 선교사들에 집중되었던 연구 대상을 지방의 미션스쿨로까지 확대하고 그림으로써 기왕의 미션스쿨 관련 교육사 서술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어서 박연호 교수(광주교대)는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한 한글교육: 1884년-1905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한 한글의 공식 문자로의 승격은 그 이전에 선교사들과 조선인 기독교 신자들이 기울인 선구적인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 한 매우 돌발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선교사들이 한 일을 대략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선교사들의 노력과 그들이 이룩한 성취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① 선교사들은 한글이라는 문자가 배우기 쉽고, 구어와 일치되며, 종교개혁의 근본적 원칙들과 부합했기 때문에 선교 문자로 선택하였다.
- ② 선교 활동에는 늘 문맹자들, 특히 여성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활동이 수반되었다.
- ③ 선교사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한글 콘텐츠들을 생산, 인쇄, 배포하였다.
- ④ 선교사들에 의해 ‘언문’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 하나의 교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⑤ 그 교과서인 『초학언문』에 나타난 그들의 교수 방법론은 지금까지도 국어교육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⑥ 선교사들의 한글교육은 종교적 차원을 넘어 조선인들의 근대적 계몽이라는 세속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그들은 수학, 과학을 비롯한 근대적 지식을 조선인들에게 보급하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세 번째로 등단한 스코트 웰스(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박사과정)는 거꾸로 같은 시기에 조선의 개화를 위해 한글만이 아니라 한문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지식인의 신념과 노력에 관해 발표하였다. 그는 보성학교 교사를 지낸 원영의이다. 1908년에 펴낸

‘소학 학문 독본’에서 그는 한자가 경서를 읽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지식의 소통과 중개를 위해서도 유용하다는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클라우스 디트리히 교수(고려대)는 한일합방 이전에 조선에서 살고 있던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자녀교육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유형화해 발표하였다.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방식, 고국으로 보내는 방식,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예를 들어 1912년 설립된 서울외국인학교)의 셋이 그것이다.

두 번째 한국 패널은 Session 6에 소속되어 같은 장소인 Room 21에서 14:30-16:00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사회는 이때도 디트리히 교수가 보았다.

발표자	주제
다니엘 피퍼(Daniel Pieper,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Chosŏn Colonial Education and the Contested Linguistic Market
케네스 웰스(Kenneth Wells,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Who for and wherefore? Protestant campaigns for ‘New Education’ in modern Korea
유진영(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A study of the Korean nurse’s education and career in West Germany during 1960-1970
만프레드 하이네만(Manfred Heinemann, 독일 하노버대학)	The ultimate self and jail-colonization: The education of North Korean students in the view of the East-German foreign policy 1952-1989

이 패널의 첫 발표자는 다니엘 피퍼는 미국인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박사과정에서 한국교육사를 공부하고 있는 젊은 학자이다. 그는 프랑스 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빌어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의 언어교육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피력했다. 교과로서의 조선어가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고학년으로 갈수록 억제되고 수업시간 수 또한 줄어드는데, 그러한 현상이 식민지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케네스 웰스 교수(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는 식민지기에 개신교 교육자들이 교육 실체에 관해, 신교육의 장단점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벌인 논쟁들을 분석하였다. 웰스 교수에 의하면, 그 이전과는 달리 한국 개신교 교육자들은 1920년과 1930년 사이에 교육 실천에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비개신교도들도 참여하면서 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데에 개신교인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유진영 교수(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는 1960년대 경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독일로 간호사들을 파견하게 된 계기를 한국과 독일 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당시의 국제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간호사들은 1965년부터 76년까지 총 10,032명이 파독되어 독일 병원에서 일을 하였는데, 한국에서와는 다른 체계의 간호사 양성 시스템과 간호교육 내용 때문에 그들은 '과잉 자격 상태(over-qualification)'로 인한 고충을 겪었다. 즉 독일은 한국의 실업학교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간호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한국의 간호사들은 3년제, 4년제의 대학과정에서 간호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간호교육이 자격의 차이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급여, 대우, 일하는 환경에서의 차이가 한국 간호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만프레드 하이네만 교수(독일 하노버대학)는 동독 사료보관소에서의 자료 조사를 근거로 동독에서의 북한 유학생들의 체류가 점차적으로 비능률적인 것으로 변해 갔음을 지적했다. 동독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전쟁 시기 고아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유학생의 경우 1955년까지 344명의 북한학생이 동독으로 보내졌으나, 1958/59년에는 단지 몇 명만이 왔다. 동독의 고등교육 담당 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 측은 아마도 자체적인 해결 노력과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유학생 파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두 패널은 한국 교육사 분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주제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패널마다 발표자 8명 외에 5-6명의 청중이 더 들어와 각 발표에 대해서 활발한 논평과 질문·답변이 이루어졌다. 두 패널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대회는 “교육과 권력: 역사적 시각들”이라는 대주제 하에 60개의 패널에서 다양한 발표들이 이루어졌다. 패널들이 너무 많아 다 경험할 수는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던 문제들이 있었다.

1. 교육사 연구와 교육정책 연구와의 관계

기조강연에서 미국 미시간대학의 마리스 비노프스키스(Maris Vinovskis)교수는 교육정책 연구에서 역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관계가 유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정책 연구자들도 역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낮고, 역사 연구자들도 역사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비판한다. 비노프스키스 교수는 부시 및 클린턴행정부의 교육정책에 참여한 본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정책 연구에 역사 연구자들의 기여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사 연구가 현실의 교육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와 관련한 매우 실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한국교육사 연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그가 소개한 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History*(Routledge)도 교육정책 연구와 교육사 연구의 관계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서구에서의 신교육운동(New Education Movement)과 그 영향

대부분의 발표가 유럽 교육사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신교육운동이다. 신교육운동은 기존의 전통적 유럽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운동으로 폭넓게 정의될 수 있지만, 주도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신교육자회의(New Education Fellowship)를 구성하고, 후일에는 세계교육자회의(World Education Fellowship)로 바뀌어 아시아권(일본, 인도, 한국 등)도 포괄하여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적 교육운동이 구미에서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이번 학회의 한 패널로 다루어진 독일 함부르크 교육모델의 확산에 대한 발표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사례를 다루고 있어 흥미로웠다. 이 패널에서는 함부르크에서 신교육(Neue Erziehung)이 1919/20년 사이에 빠르게 구현된 것에 주목하였는데, 함부르크 학교개혁 성공의 요인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주도성, 노동계급 학생과 학부모의 지원, 개혁운동을 지원하는 행정가들의 결함 등을 들고 있다. 패널에서는 독일의 개혁적 학교모델이 지닌 실험적, 공동체적 교육의 성격이 유럽 전역에 어떻게 확산되고 자국의 조건에 적응되어 갔는가를 개별 사례들에 대한 발표를 통해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1920년대를 전후해서 서구의 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세계교육사적 비교 관점에서 동아시아교육을 재조명하는 것도 의미 있다 하겠다.

3.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에서의 교육

대회의 개최지가 구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였기 때문에 기존에 비주류로 취급되어 관심을 받지 못한 국가들의 사례도 접할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다. 특히 라트비아는 제정러시아로부터 1917년에 독립한 후 소련 공산당의 정치적 간섭, 독일 나치당의 지배, 소비에트연방에의 편입 등 복잡하고 비극적인 현대사를 겪어 온 국가이다. 소연방의 감찰체제하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던 시기의 교육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을 재건설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쟁점들에 대한 이해는 교육과 국가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교육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있어 가장 핵심적 기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변화는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한 거시적 관점 외에도 가족생활의 변화 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도 발표되었다. 라트비아대학 출신의 신진 연구자 Nora Jansone-Ratinika의 발표에 의하면, 소비에트연방의 정치 이데올로기 하에서 라트비아 사회의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사회주의 경제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권위 구조를

해체시켰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사적 자료를 통해 1960-80년의 기간 동안 나타난 변화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외부적 정치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가족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룬 이러한 연구는 거시적 정치체제의 변화가 개인들의 일상과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상당히 흥미롭다. 한편, 체제 변화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이 지역들에서의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재조명과 통일 이후의 교육을 전망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III. 제35회 런던 대회와 대학원생 발표 지원 계획

내년 제36회 대회는 7월 23-26일 나흘 동안 영국 런던에서 런던대학 교육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³⁾ 주최로 열린다. 대회 주제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과 전쟁의 관계, 평화를 강화하기 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그리고 전쟁과 평화”로 정해졌다. 그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쟁을 위한 교육: 전쟁을 준비하고 선동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 특정한 형식의 커리큘럼과 조직화된 선전을 포함한다.
- ② 평화를 위한 교육: 평화를 준비하고 평화 또는 비폭력적 행위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 특정한 형식의 커리큘럼과 조직화된 평화 운동을 포함한다.
- ③ 전쟁이 교육에 가한 충격: 전쟁의 경험이 아이들, 학교들, 교사들과 교육체제에 준 직접적 충격.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쟁의 장기적 귀결과 유산.
- ④ 전쟁과 평화에 대한 표현들: 매체들, 교과서, 문화, 그리고 박물관과 공식적 기념관 같은 조직된 기억 속에서의 전쟁과 평화.

런던 대회의 개별 발표 신청 및 패널 설치 신청은 2013년 7월부터 이미 받고 있으며 11월 30일이 신청 마감일이다(<http://www.ische2014.org/theme>). 대회 등록은 2014년 1월부터 개시된다. 대회 등록비는 4월 30일 이전에 등록할 경우 320파운드(대학원생들은 120파운드), 5월 1일부터 370파운드로 올라간다. 여기에는 참가비, 간식과 점심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역사가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소풍 프로그램들도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⁴⁾ 그 참가비는 통상 별도로 받는다. 내후년 제

3) IOE는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소처럼 연구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교육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즉 우리로 치면 교육학과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4) 아래의 글은 ‘ISCHE 36, London 2014’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홍보문이다.

“A range of excursions for conference delegates will be arranged to such relevant sites as the Imperial War Museum, the Cenotaph London in Whitehall (designed by Sir Edwin Lutyens and erected after the First World

37회 대회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리며, 대회 주제는 “문화와 교육”이다. 2015년에는 베이징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리가 대회 참가자 226명 중 23%에 해당하는 53명이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미국교육사학회는 'Jurgen Herbst Travel Award'라는 이름으로, 영국교육사학회는 'Brian Simon ISCHE Postgraduate Bursary'라는 이름으로 이취에서 발표하는 대학원생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 항목이 있다. 이취에 발표 계획서를 제출하여 통과된 대학원생들의 신청을 받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발하며 지원 액수는 미국은 500달러, 영국은 'registration + standard class travel to ISCHE'이다. 선발 인원수는 각각 한 명씩이다.

한국교육사학회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ISCHE 발표 장려금' 같은 사업과 예산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마침 이 용도로의 사용을 조건으로 100만 원을 기탁한 익명의 회원이 있어 내년 대회는 학회의 사업 및 예산 조정 없이도 대학원생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영국과 비슷하게 공개경쟁 방식으로 대학원생 회원 두 명을 선발하여, 이 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취에서의 발표는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패널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다. 패널 단위의 신청을 이취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패널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리라 생각한다. 발표를 원하는 일반 회원이나 대학원생 회원들은 우리 학회에 발표를 신청하고, 학회는 패널 소집자(convenor)를 한두 사람 지명하여 이취의 요구에 맞추어 패널 신청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⁵⁾ 이취의 신청 마감은 11월 30일이므로, 우리 측 신청 마감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11월 15일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취 측은 2014년 1월 31까지 발표 신청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발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할 준비는 피피티 자료 준비이다. 한 세션에 할당되는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발표자가 네 명인 패널인 경우 한 사람이 발표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5분, 3명일 경우 20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간 제약 때문에 긴 원고를 읽는 것보다는 피피티를 활용해서 간단명료하게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War), and the National Monument to the Women of World War II, close to Westminster Abbey and the Houses of Parliament. Excursions will also be organised before or after the conference to other major educational sites in the south of England such as the University of Oxford, the University of Cambridge, Eton College and Winchester College. There will be opportunities to visit other key archival collections related to the theme in the London area, for example at the National Archives in Kew or the Women's Library at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5) 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네 개이지만, 한 패널에서 발표 언어가 다른 소통이 훨씬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국 패널에서는 영어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독일어나 프랑스로 발표하고자 한다면 개별 발표 신청을 권한다. 발표 개요문(abstract)의 분량은 참고문헌 포함 최대 500 단어이다. 한 패널의 발표 인원은 최소 3명이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나름대로 국제 교류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 교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 없이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중국·일본의 3개국 정도의 학자가 발표에 참여하는 일종의 소규모 동북아시아 국제학술대회를 몇 차례 개최한 경험이 있다. 그것들은 당시의 조건과 사정 속에서 치러진 행사였으므로 그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제학술대회를 치를 때마다 그 협소한 교류 범위와 발표 언어 문제 때문에 보람만큼이나 답답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그런 답답함을 일거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교류의 장이다. 이제는 여섯 대륙 30여개 국가에서 200-300명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 온 것보다 10배 이상 교류 범위가 넓고, 교육사 분야에서 가장 전통 있는 국제학술대회이다. 그리고 그 참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동적인 청중이 아니라 발표하고 질문하러 오는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계획은 참 좋다. 이체의 현 집행부는 아시아 국가 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싶어 하고, 한국교육사학회의 현 집행부도 국제 교류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싶어 한다. 마치 서로 배우자감을 찾는 노처녀 노총각의 눈이 맞은 형국이다.

한국교육사학회가 한국의 교육사학계를 대표하여 이체의 자매학회로 가입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이체의 연차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체라는 채널을 통해 대외 교류의 폭을 기존의 동아시아에서 일거에 전 세계로 확대시킬 수 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 학자들이 어떤 사료와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연구하는 방식과 그 성과도 효과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공식 발표 언어는 네 개이지만, 주로 영어로 발표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도 상대적으로 적고 개선 방법도 단순하다. 우리 회원들이, 특히 젊은 대학원생 회원들이 이체라는 새로 열린 국제 교류의 장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학구 활동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기를 간곡히 권한다.